

『涅槃經宗要』의 註釋的 연구(IV)

李平來*

일러두기

1. 『大正新脩大藏經』第38卷, No. 1769, 『涅槃宗要』를 번역의 底本으로 한다.
2. [] : 底本の 것을 東文選에 따라서 수정한 것. 예; 遍[通] 通을 遍으로 수정한다는 말.
3. [] : 底本에 없는 것을 글의 흐름에 따라 보충한 것. 예: [大] 를 보충한다는 말.
4. < > : 글의 흐름에 따라서 삭제한 것. 예; <無> 無를 삭제한다는 말.
5. () : 글의 흐름에 따라서 수정한 것. 예; 無有(有無) 有無를 無有로 수정한다는 말.
6. < > : 인용한 원전에 따라서 수정한 것. 예; 滅<識> 識을 滅로 수정한다는 말.
7. ≤ ≥ : 인용한 원전에 따라서 보충한 것. 예; ≤亦≥ 亦을 보충한다는 말.
8. 【】 : 인용한 원전에 따라서 삭제한 것. 예; 【依】 依를 삭제한다는 말.
9. 『大正藏』: 『大正新脩大藏經』
10. SED: Sanskrit-English Dictionary, Sir Monier Monier-Williams, Oxford University Press, 1899

제四항 불성이 있고 없음을 밝히는 부문

제일목 聖人の 계위에 관하여

불성이 있고 없음의 다른 점은 대략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인의 계위에서 보는 것이며, 둘째 범부의 계위에서 보는 것이다.

성인의 계위에서 불성이 있고 없음에 대하여 먼저 다섯 단계를 만든다. 말하자면 앞의 五地보디삿뜨와까지를 첫째 단계로 삼으며, 십빠라미따dasa pāramitā¹⁾의 행위를 가지고 십지문²⁾에 짝을 지어보면, 아직 빠라가를 얻지 못하여 形相이 범부의 계위와 같기 때문이다.

1) 십빠라미따dasa pāramitā, 보시dāna, 지계śīla, 인욕kṣānti, 정진vīrya, 선정dhyāna, 지혜prajñā, 방편upāya, 원praṇidhāna, 력bala, 지jñāna의 열 가지 빠라미따를 가리키며, 화엄경에서의 수행의 덕목이다.

2) 십지daśa-bhūmi와 십빠라미따daśa-pāramitā를 가지고 짝을 지으면 아래와 같다.

- ① 歡喜地pramuditā bhūmi / dāna-pāramitā 檀那·布施
- ② 離垢地vimālā bhūmi / śīla-pāramitā 尸羅·持戒
- ③ 發光地prabhākārī bhūmi / kṣānti-pāramitā 山提·忍辱
- ④ 焰慧地arcismatī bhūmi / vīrya-pāramitā 毘梨耶·精進
- ⑤ 離勝地sudurjaya bhūmi / dhyāna-pāramitā 禪那·禪定
- ⑥ 現前地abhimukhī bhūmi / prajñā-pāramitā 般若·智慧
- ⑦ 遠行地dūraṅgamā bhūmi / upāya-pāramitā 方便
- ⑧ 不動地acalā bhūmi / praṇidhāna-pāramitā 願·誓願
- ⑨ 善慧地śādhumatī bhūmi / bala-pāramitā 力
- ⑩ 法雲地dharmameghā bhūmi / jñāna-pāramitā 智

六·七·八地를 둘째 단계로 삼으며, 비록 出入이 있고 出入이 없다는 차이는 있지만, 한결같이 俗諦에서는 功用 이 있기 때문이다.

第九地를 셋째 단계로 삼으며, 이 단계에서는 眞諦 paramārtha-satya³⁾와 俗諦 samvṛti-satya⁴⁾에서 모두 功用이 없기 때문이다. 第十地를 넷째 단계로 삼으며, 십빠라미따를 具足하여 因位の 행위를 완전하게 만족하기 때문이다. 如來地를 다섯째 단계로 삼는다.

그리고 이 다섯 단계에 관하여 불성의 작용이 있고 없음을 논설하려고 한다. 이 『大般涅槃經』 「迦葉菩薩品」 제24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붓다님의 十力 Daśa balāni⁵⁾과 四無畏 등 한량

3) 진제(paramārtha-satya, 승의제, 제일의제) 최고의 진리 또는 궁극적 진리

4) 속제(samvṛti-satya, loka-samvṛti-satya, 세제, 세속제) 세간에서의 진리 또는 세속적인 진리.

5) 十力 Daśa balāni

① 處非處智力: 도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변별하는 지혜의 힘

② 業異熟智力: 하나하나의 業因과 그 果報와의 관계를 여실히 아는 지혜의 힘

③ 靜慮解脫等持等至智力: 四禪·八解脫·三三昧 등의 선정을 아는 지혜의 힘

④ 根上下智力: 중생의 근기의 上下優劣을 아는 지혜의 힘

⑤ 種種勝解智力: 중생의 여러 가지 바람을 아는 지혜의 힘

⑥ 種種界智力: 중생이나 제법의 본성을 아는 지혜의 힘

⑦ 遍趣行智力: 중생이 지옥·Nirvāṇa 등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를 아는 지혜의 힘

없는 모든 법이 붓다님이며 佛性이다. 이와 같은 붓다님의 불성에는 곧 일곱 가지 작용이 있는데, 첫째는 常이며, 둘째는 樂이고, 셋째는 我이며, 넷째는 淨이고, 다섯째는 眞이며, 여섯째는 實이고, 일곱째는 善이다. 後身보디삿뜨와의 佛性에는 여섯 가지 작용이 있는데, 첫째는 常이며, 둘째는 淨이고, 셋째는 眞이며, 넷째는 實이고, 다섯째는 善이며, 여섯째는 少見이다. 九地보디삿뜨와의 불성에 여섯 가지 작용이 있는데, 첫째는 常이며, 둘째는 善이고, 셋째는 眞이며, 넷째는 實이고, 다섯째는 淨이며, 여섯째는 可見이다. 八地보디삿뜨와부터 六地보디삿뜨와까지의 불성에 다섯 가지 작용이 있는데, 첫째는 眞이며, 둘째는 實이고, 셋째는 淨이며, 넷째는 善이고, 다섯째는 可見이다. 五地보디삿뜨와로부터 初地보디삿뜨와까지의 불성에 다섯 가지 작용이 있는데, 첫째는 眞이며, 둘째는 實이고, 셋째는 淨이며, 넷째는 可見이고, 다섯째는 善과 不善이다.”⁶⁾

⑧ 宿住隨念智力: 자타의 과거세의 것을 생각해내는 지혜의 힘

⑨ 死生智力: 중생이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 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아는 지혜의 힘

⑩ 漏盡智力: 번뇌를 끊은 경지와 그 곳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여실히 아는 지혜의 힘

6) 『大般涅槃經』: 如來十力四無所畏。大慈大悲三念處。首楞嚴等八萬億諸三昧門。三十二相八十種好。五智印等三萬五千諸三昧門。金剛定等四千二百諸三昧門。方便三昧無量無邊。如是等法是佛佛

이것을 해석하여 논술하면 이 다섯 단계 가운데에 통틀어 열 가지 작용이 있다. 첫째는 善과 不善이며, 둘째는 可見이고, 셋째는 少見 및 不達 佛性 계위에 있는 일곱 가지 작용(常·樂·我·淨·眞·實·善)이다. 이 열 가지 작용은 보신불다님의 因位와 果位에 있는 것이며, 법신불다님 dharmakāya-buddha⁷⁾의 眞如로서의 佛性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저곳의 글의 짜임새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열 가지 작용으로 불성이 있고 없음을 모두 묶어서 다섯 가지로 짝을 짓는다.

첫째는 眞·實·淨, 이 세 가지 작용은 다섯 단계에 공통

性。如是佛性則有七事。一常二我三樂四淨五眞六實七善。是名分別答。善男子。後身菩薩佛性有六。一常二淨三眞四實五善六少見。是名分別答。如汝先問。斷善根人有佛性者。是人亦有如來佛性。亦有後身佛性。是二佛性障未來故得名為無。畢竟得故得名為有。是名分別答。如來佛性非過去非現在。非未來。後身佛性現在未來少可見故得名現在。未具見故名為未來。如來未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時。佛性因故亦是過去現在未來。果則不爾。有是三世有非三世。後身菩薩佛性因故亦是過去現在未來。果亦如是。是名分別答。九住菩薩佛性六種。一常二善三眞四實五淨六可見。佛性因故亦是過去現在未來。果亦如是。是名分別答。八住菩薩下至六住佛性五事。一眞二實三淨四善五可見。佛性因故亦是過去現在未來。果亦如是。是名分別答。五住菩薩下至初住佛性五事。一眞二實三淨四可見五善不善。(『大正藏』12-818a)

7) 법신불다님(dharmakāya-buddha, 법불, 법신, 자성신, 법성신) 우주의 보편적인 진리를 신체로 하고 있는 불다님. 우주에 편만하는 절대적인 진리(dharma)를 인격화하고, 진리의 체현자로서 이상화한 불신을 법신이라고 한다.

이며, 둘째는 善, 이 한 가지 작용은 상위의 네 단계에 있고, 셋째는 可見, 이 한 가지 작용은 하위의 세 단계에 있으며, 넷째는 常, 이 한 가지 작용은 상위의 세 단계에 있고, 다섯째는 我·樂·少見·善과 不善, 이 네 가지 작용은 그에 해당되는 데에 따라서 한 단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은 我라 함은 곧 붓다님의 뜻이며, 樂이라 함은 곧 니르와나의 뜻이므로, 붓다님과 니르와나는 모두 究竟을 드러내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오로지 果地에만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少見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단계로 짝을 지어 드러내는 바이므로, 이 한 가지 작용은 오로지 十地에만 있다.

善과 不善은 形相이 凡夫와 같으므로 아직 순수한 선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작용은 하위의 첫째 단계에 있다. 그리고 첫째 단계에 네 가지 작용을 세우는 뜻은 이와 같다.

常의 작용이 상위의 세 단계에 있는 까닭은, 마음대로 앞에 나타나는 것이 常의 뜻이므로, 九地 이상의 세 단계는 비록 因位와 果位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다 같이 진제와 속제에서 攻用이 없음을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常의 작용은 상위의 세 단계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可見이 하위의 세 단계에 있는 까닭은, 十地는 因地를 완성시키고 佛地는 果地를 완성시킨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인지와 과지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똑 같이 圓滿

하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九地 이하는 모두 아직 원만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원만함을 갖추 수 있기 때문에 가견을 말씀하신 것이다.

善의 작용이 상위의 네 단계에 있는 까닭은, 六地 이상은 벌써 뿌라가를 얻어서 善巧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善의 작용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淨·眞·實이 다섯 단계에 공통되는 까닭은, 이 가운데의 淨은 無漏의 뜻이므로 初地 이상은 참다운 無漏를 얻기 때문에 淨德이 다섯 단계에 공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리고 허망함을 벗어난 것이 眞의 뜻이므로 見分에 있으며, 허망하지 않음이 實의 뜻이므로 相分에 해당한다고 말씀한 것이다. 無漏의 見分과 相分은 헛된 것도 아니며 망령스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眞과 實, 이 두 가지는 역시 다섯 단계에 공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다.⁸⁾ 그러나 이 열 가지 작용이 있다거나 없다는 뜻은

8)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를 만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	넷째 단계	다섯째 단계
常			0	0	0
我					0
樂					0
淨	0	0	0	0	0
眞	0	0	0	0	0
實	0	0	0	0	0
善		0	0	0	0
少見				0	
可見	0	0	0		
善不善	0				

다만 한 쪽만을 붙잡고서 그 계급을 나타낸 것이며, 반드시 한결같이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第四明有無者，有無差別，略有二句，一就聖位，二約凡位。聖位有無，先作五階，謂前五地，爲第一位，以十度行，配十地門，未得般若，相同凡位故，六七八地，爲第二位，雖有出入無出入異，齊於俗諦，有功用故，第九地，爲第三位，以於眞俗，俱無功用故，第十地，爲第四位，具足十度，因行窮滿《因》故，如來地者，爲第五位，就此五位，說事有無，如迦葉品說，如來十力，四無畏等，無量諸法，【足佛】是佛之性，【卽】如是佛性，卽有七事，一常二樂三我四淨五眞六實七善，後身菩薩，佛性有六【事】，一常二淨三眞四實五善六〈少〉見，九地菩薩，佛性有六，一常二善三眞四實五淨六可見，八地菩薩，下至六地，佛性有五事，一眞二實三淨四善五可見，五住菩薩，下至初地，佛性有五事，一眞二實三淨四可見五善不善，解言，此五位中，通有十事，一善不善，二《者》可見，三少見，並佛地七，是十事（法）在報佛因果，非就法身眞如佛性，以彼處文相，不得爾故，然此十事有無，總束以爲五對（倒），一〔者〕眞實淨三，貫通五位，二者善之一事，在上四位，三者可見一事，在下三位，四者常之一事，在上三位，五者我樂少見善不善四，隨其所應，局在一位，所以然者，我者卽是佛義，樂者是涅槃義，佛與涅槃，究竟之名，故說佛與涅槃究竟之名，故說此二唯在果也，言少見者，爲前所說五對所顯，故此一事唯在十也，善不善者，相同凡夫，未得純善，故此一事在一位，一位四事立意如是，所以常事在上三位者，任運現前是其常義，九地以上三位雖因果殊俱於眞俗得無功用，所

以可見在下三位者，十地因滿佛地果圓（員），因果雖殊同圓（員）滿故，九地以下齊未圓具（俱）足應滿故說可見，所以善事在上四位者，六地已上已得般若善巧利物故得善事，所以淨與眞實通於五位者，此中淨者是無漏義，初地以上得眞無漏，故說淨德通於五位，離妄爲眞義，在見分，不虛爲實義，當相分，無漏見相非妄非虛，故說此二亦通五位，然此十事有無之義，但約一邊顯其階級，未必一向定爲然也。

제이목 범부의 계위에 관하여

다음에는 凡夫의 계위에 대하여 佛性이 있고 없음을 논설하면, 이 『大般涅槃經』 「迦葉菩薩品」 제24의 네 글귀 가운데의 말씀과 같다.

“어떤 이는, 불성이 잇찬띠까icchantika에게는 있으며 선근을 가진 사람에게는 없다.

어떤 이는, 불성이 선근을 가진 사람에게는 있으며 잇찬띠까에게는 없다.

어떤 이는, 불성이 잇찬띠까와 선근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있다.

어떤 이는, 불성이 잇찬띠까와 善根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없다.”⁹⁾

9) 『大般涅槃經』:

或有佛性。一闍提有善根人無。

或有佛性。善根人有一闍提無。

或有佛性。二人俱有。

或有佛性。二人俱無。(『大正藏』12-818a)

해석하여 이르기를 이와 같은 네 글귀는 報身¹⁰⁾의 佛性を 드러내는 것이며, 法身の 眞如인 佛性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 經의 글의 짜임새가 꼭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위의 네 글귀를 분별하면 대략 네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두 문을 나타내기 때문이며, 둘째는 因果를 구별하기 때문이고, 셋째는 네 가지 의미를 전개하기 때문이며, 넷째는 두 가지 치우침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첫째로 두 문을 나타내기 때문에 네 글귀를 말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앞의 두 글귀는 의지문을 들어서 다섯 種性¹¹⁾을 말씀하는 것이며, 뒤의 두 글귀는 연기

10) 보신(sambhoga-kāya, 수용신, 등류신) : 보디삿뜨와로서의 빠라미따의 수행과 서원이 완성되어, 그 과보로서 얻게 된 완전하고도 원만하신 이상적인 붓다님이다. 삼신불의 인위에서 지은 한량없는 원력의 과보로 얻게된 萬德이 원만한 불신으로서, 깨달은 法悅을 자기 혼자서만 누리고 다른 이와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는 자수용보신과, 다른 이와 같이 이 法悅을 받을 수 있는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려고 적극적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타수용보신으로 나누어진다.

11) 『瓔珞經』에서 말씀하신 여섯 種性 가운데에서, 여섯 번째의 妙覺性은 果性이므로 이것을 빼고, 因位에 속하는 種性을 따로 분별하여 다섯 種性이라고 한다.

① 習種性; 十住의 계위로 空觀을 연구하고 닦아 見思의 번뇌를 부순다.

② 性種性; 十行의 계위로 空에 住하지 않으며 능히 중생을 교화해 일체 법성을 분별한다.

문을 들어서 因位와 果位의 불성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첫째 글귀에서 佛性이 잇찬띠까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不定性인 사람이 善根을 끊었을 때조차도 오히려 붓다님이 될 진실한 종자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다. 또한 佛性이 善根을 가진 사람에게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틀림없이 二乘에게 善根이 있을 때에는 앞의 말씀과 같이 붓다님이 될 종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다.

둘째 글귀 가운데에서 善根을 가진 사람에게 佛性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보디삿뜨와 種性은 善根을 끊지 않고 본래부터 붓다님이 될 종자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다. 또한 잇찬띠까에게 佛性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불성이 없는 중생이 善根을 끊었을 때에는 영원히 앞의 보디삿뜨와와 같은 種性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꼭 알아두어라. 이 두 글귀는 다섯 종성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셋째 글귀에서 불성이 잇찬띠까와 선근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은, 앞의 두 글귀 안의 서로 겹치는 두 사람은 모두 緣起門 가운데의 因性을 가지고

③ 道種性; 十廻向의 계위로 중도의 묘관을 닦으므로 인해 일체의 불법에 통달함.

④ 聖種性; 十地로 이 앞의 住, 行, 廻向을 모두 賢이라 하며, 이 십지의 보디삿뜨와가 中道の 묘관에 의해 무명의 一分을 논파하고 聖位를 증입하므로 聖種性이라 함.

⑤ 等覺性; 이 계위의 보디삿뜨와가 뒤의 묘각을 바라보며 오히려 一 등이 있으나 앞의 모든 위치보다 수승하므로 等覺性이라 함.

있으며, 무릇 마음이 있는 이는 깨달음bodhi¹²⁾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넷째 글귀에서 불성이 잇찬띠까와 善根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없다고 하는 말씀은, 이는 곧 셋째 글귀에서 말씀한 두 사람은 모두 연기문 가운데의 果地의 불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며, 당시에는 아직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꼭 알아두어라. 이 두 글귀는 因果의 성품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經의 뜻이 넓고 크기 때문에 포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통틀어 두 문을 가지고 네 글귀를 말씀하는 것이다. 첫째 뜻이 이와 같다.

12) [SED]p.733a, bodhi

√budh to wake, wake up, be awake; to perceive, notice, understand; to have an insight into. (깨닫다, 깨닫게 하다, 깨어있다; 인지하다, 알아차리다, 이해하다;~을 꿰뚫어보다)

bodhi m.f. (with Buddhists or Jainas)perfect knowledge or wisdom(by which a man becomes a Buddha or Jina), the illuminated or enlightened intellect(of a Budha or Jaina). (불교도나 자이나교도에게, 인간이 부처나 자이나가 되는 완전한 지식이나 지혜, 붓다나 자이나의 깨달은 지식)

한문경전에서는 '菩提'라고 음사하며, 우리는 또 이것을 '보리'라고 읽으며, 『般若心經』의 끝 부분에 있는 "bodhi svaha"에서는 '모지'라고 읽고, 道, 깨달음이라고 번역한다.

bodhi m. the tree of wisdom under which perfect wisdom is attained or under which a man becomes a Buddha, the sacred fig-tree(지혜의 나무로, 그 아래에서 완전한 지혜가 성취되거나 그 아래에서 인간이 부처가 된 지혜의 나무, 성스러운 무화과나무)

次約凡夫位說有無者，如迦葉品四句中說，或有佛性，一闍提有善根人無，或有佛性，善根人有一闍提無，或有佛性，二人俱有，或有佛性，二人俱無，

解云，如是四句顯報佛〔性〕，非就法身眞如佛〔性〕，彼處文勢必應爾故，四句差別略有四義，顯二門故，別因果故，開四意故，遮二邊故，

第一義者爲顯二門故說四句，何者，前之二句約依持門說五種性，其後二句就緣起門顯因果性

謂初句言闍提人有者，不定性人斷善根時，猶有作佛法爾種子故，善根人無者，決定二乘(來)有善根時，無如前說作佛種子故

第二句中善根人有者，菩薩種性無斷善根，本來具有作佛種子故，闍提人無者，無性衆生斷善根時，永無如前菩薩種性故，故知此二句顯五種性也

第三句言二人俱有者，前二句內兩重二人皆有緣起門中因性，凡有心者富得菩提故，

第四句言二人俱無者，卽第三句所說二人齊無，緣起門中果性，當時未得無上菩提故，故知此二句顯因(二)果性，如此經意寬無所不苞，通取二門以說四句，初義如是，

둘째로 因果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연기를 들어서 선언하여 한 문으로 말씀하려는 것이다. 앞에 내세운 세 글귀는 인의 차별을 설명하는 것이며, 마지막 한 글귀는 과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

첫째 글귀 가운데에서 불성이 잇찬띠까icchantika에

게는 있으며 선근을 가진 사람에게는 없다고 말씀한 것은, 모든 선근을 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성한 오온이라도 보신이 될 불성임을 밝히려는 것이다.

둘째 글귀에서 불성이 선근을 가진 사람에게는 있으며 잇찬띠까에게는 없다고 말씀한 것은, 모든 善根을 가지고 있는 이가 소유한 선한 오온도 역시 報身이 될 불성임을 밝히려는 것이다.

셋째 글귀에서 불성이 잇찬띠까와 선근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말씀한 것은, 앞의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無記인 오온이 모두 報身이 될 수 있는 正因이라는 말씀이다. 그것은 저 모든 善·惡·無記의 三性인 五陰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더욱 보신을 잘 만들기 때문이며, 三性を 드러내어 모두 다 佛性이 되므로 세 글귀를 지어서 因地의 차별을 밝힌 것이다.

넷째 글귀에서 불성이 잇찬띠까와 善根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없다고 말씀한 것은, 앞의 두 사람이 비록 善·惡·無記의 세 가지 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아직 報身の 果佛性을 얻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極果인 純一하고 착한 불성을 나타내려고 한 글귀를 내세워 둘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뜻이 이와 같다.

第二義者宜就緣起一門而說。前立三句明因差別。最後一句顯果無二。何者。

初句中言闍提人有善根人無者。是明一切斷善根人所有不善五陰亦作報佛之性。

第二句言善根人有闍提人無者。是明一切有善根者。所有

善五陰亦爲報佛.

第三句二人俱有者. 謂前二人所有四種無記五陰. 皆能得作報佛正因. 以彼一切三性五陰. 皆爲一心. 轉所作故. 爲顯三性. 皆爲佛性故. 作三句明因差別也

第四句言二人俱無者. 謂前二人雖有三因. 而皆未得報佛果性. 爲顯極果純一善性故. 立一句顯無二也. 二義如是..

셋째로 의미란 네 가지 의미를 전개하기 위하여 네 글귀를 말씀하는 것이다.

첫째 글귀는 억누르고 이끌어준다는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다. 善根을 끊는 사람을 이끌어줌으로서 절망하는 마음을 제거하여주기 때문이며, 또한 선근을 가진 사람이 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악을 꿈꾸는 것을 억누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둘째 글귀는 勸請하는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다. 벌써 악을 꿈꾸는 것을 억눌러버렸으므로, 온갖 선을 닦기를 권청하는 것이며, 손을 들거나 머리를 숙이는 것이 모두 佛道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벌써 절망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었기 때문에, 모든 악에서 벗어날 것을 권청하는 것이며, 惡이란 禍의 근본이 되어서 아주 잘 불도를 장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글귀는 보경이 생겨나도록 하려는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이다. 한 유정이라도 미래의 佛果를 품고 있지 않는 이가 없는데, 미래의 佛果를 품고 있는 이는 반드시 大覺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글귀는 널리 제도하는 일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

숨하는 것이다. 비록 미래의 佛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고 깨닫지 못하는데, 보고 깨닫지 못하는 이는 오래도록 苦海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의미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은, 첫째 글귀 가운데에서는 邪見에 들어서 말숨하는 것이며, 둘째 글귀 가운데에서는 信心을 들어서 말숨하는 것이고, 셋째 글귀와 넷째 글귀는 똑같이 미래의 佛果를 희망하는 것이므로, 미래에 있는 것을 가리키려고 두 사람이 다 있다고 말숨하는 것이며, 현재 없는 것을 근거로 하여 두 사람이 다 없다고 말숨하는 것이다. 셋째 뜻은 이와 같다.

第三意者. 爲四種意故說四句. 第一句者抑引意說. 引斷善根者除絕望心故. 抑善根人持善夢惡故.

第二句者勸請意說. 既除夢惡勸修衆善. 舉手低頭皆成佛道故. 既除絕望心. 請(識)離諸惡. 惡爲禍本能障佛道故

第三句者生普敬意. 無一有情不含當果. 含當果者必成大覺故.

第四句者起廣度意. 雖有當果而無觀覺. 無觀覺者長沒苦海故.

此四意內所詮義者. 第一句中約邪見說. 第二句中約信心說. [第三] 第四同望當果 指當有義 說爲俱有. 據現無義 亦說俱無. 三義如是.

넷째로 두 가지 치우침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 글귀를 말숨하는 것이다. 앞의 두 글귀는 분석적으로 치우침에서 벗어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며, 뒤의 두

글귀는 종합적으로 치우침에서 벗어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 분석적으로 치우침에서 벗어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말쑤은, 첫째 글귀에서 불성이 잇찬띠까 icchantika에게는 있다고 말쑤한 것은 틀림없이 불성이 잇찬띠까에게는 없다고 하는 치우침을 막는 것일 뿐, 틀림없이 佛性이 잇찬띠까에게는 있다고 하는 치우침을 따르려는 것은 아니며, 둘째 글귀에서 불성이 잇찬띠까에게는 없다고 말쑤한 것은 틀림없이 불성이 잇찬띠까에게는 있다고 하는 치우침을 막는 것일 뿐, 틀림없이 불성이 잇찬띠까에게는 없다고 하는 치우침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이 『太般涅槃經』의 아래 글에서 말쑤하는 것과 같다.

“만일 어떤 이가 善根을 끊은 이는 틀림없이 불성이 있기도 하고 틀림없이 불성이 없기도 하고 말한다면, 이것을 치답(置答)¹³⁾이라고 한다.

13) 置答sthāpanīya-vyākaraṇa

치답이란 四記答 가운데의 하나이며, 사기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應一向記問=一向記: 決定答ekaṃśa-vyākaraṇa

“살아 있는 것은 모두 죽는가?”라는 물음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단정적인 회답을 하는 경우이다.

② 應分別記問=分別記: 解義答vibhajya-vyākaraṇa

“죽은 이는 모두 윤회하는가?”라는 물음에,

“번뇌가 있는 이는 윤회하며, 없는 이는 재생하지 않는다”라고 조건에 따라서 대답하는 경우이다.

③ 應反詰記問=反問記: 反問答paripṛcchā-vyākaraṇa

까쉬야빠가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듣고서 대답하지 않으면 바로 치답이라고 하나이다. 여래께서는 이제 무슨 인연으로 대답을 하시면서도 치답이라고 하시나이까. 선남자여, 나도 또한 말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서 대답하지 않으면 치답이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와 같이 치답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邪見을 막아서 그치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邪見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뜻을 가지므로 치답이라고 할 수 있느니라”.¹⁴⁾

“인간은 뛰어난 존재인가?”라는 물음에,

“무엇과 비교해서 그런가?”라고 반문한 뒤에, 천신과 비교할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대답하며, 축생과 비교할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물음에 따라서 대답하는 경우이다.

④ 應捨置記問=捨置記: 置答sthāpanīya-vyākaraṇa 또는 無記avyākṛta

“독화살의 비유”에서의 부처님과 Maluṅkyaputta와의 대화와 같은 내용으로, 四類十難 또는 四類十四難과 같은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는 방식이다.

① 세계는 시간적으로 ①상주인가, ②무상인가, ③상주이면서 무상인가, ④상주도 아니고 무상도 아닌가?

② 세계는 공간적으로 ①유변인가, ②무변인가, ③유변이면서 무변인가, ④유변도 아니고 무변도 아닌가?

③ 몸과 마음은 ①같은가 ②다른가?

④ 여래는 사후에 ①존재하는가, ②존재하지 않는가, ③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가, ④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가?

14) 『大般涅槃經』: 若有說言。斷善根者定有佛性定無佛性。是名

잇찬띠까에 대하여 두 가지 치우침을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선근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도 마땅히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

뒤의 두 글귀는 종합적으로 치우침에서 벗어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으로, 셋째 글귀에서는 불성이 잇찬띠까와 선근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불성은 토끼의 뿔과 같지 않음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는 뜻에 의지하여 밝히려고 佛性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며, 넷째 글귀에서는 불성이 잇찬띠까와 善根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없다고 하는 것은, 불성은 허공과 같지 않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들어서 드러내려고 불성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이 『大般涅槃經』의 아래 글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선남자여, 중생에게 불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까닭이 무엇이나, 불성이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허공과 같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허공은 볼 수 없지만 불성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불성이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토끼의 뿔과 같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토끼의 뿔은 생겨나지 못하지만 불성은 생겨나

置答。迦葉菩薩言。世尊。我聞不答乃名置答。如來今者何因緣答而名置答。善男子。我亦不說置而不答。勤說置答。善男子。如是置答復有二種。一者遮止。二者棄著。以是義故得名置答。(『大正藏』12-818b)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성은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있기도 하고 또는 없기도 하다.

왜 있다고 말하는가. 모든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모든 중생이 끊어 없어지지 않는 것이 마치 등불의 불꽃과 같은 것이며 내지 가장 높은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에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왜 없다고 말하는가. 모든 중생이 현재는 아직 모든 불법의 상·락·아·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불성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불성의 있음과 없음이合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中道라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붓다님은 중생에게 불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다.”¹⁵⁾

만일 이와 같이 치우침을 벗어난다는 뜻에 의하면, 이 네 글귀는 모두 미래의 佛性을 바라보고 하는 말씀이다. 만일 네 글귀를 모두 하나의 果位를 바라보게 하

15) 『大般涅槃經』: 善男子。眾生佛性非有非無。所以者何。佛性雖有非如虛空。何以故。世間虛空雖以無量善巧方便不可得見。佛性可見。是故雖有非如虛空。佛性雖無不同兔角。何以故。龜毛兔角雖以無量善巧方便不可得生。佛性可生。是故雖無不同兔角。是故佛性非有非無亦有亦無。云何名有。一切悉有。是諸眾生不斷不滅猶如燈焰。乃至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是故名有。云何名無。一切眾生現在未有一切佛法常樂我淨。是故名無。有無合故即是中道。是故佛說眾生佛性非有非無。(『大正藏』12-819b)

는 것이라면, 종합적인 것과 분석적인 것의 두 가지 뜻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앞의 두 사람 말하는 두 글귀는 遮詮¹⁶⁾의 뜻에 의지하여 두 가지 치우침을 없애려는 것이며, 뒤의 두 사람이 주장하는 두 글귀는 表詮¹⁷⁾의 뜻에 의지하여 中道를 보이려는 것이다. 中道의 뜻은 두 사람에게 공통이기 때문에 통합하여 논설하며, 두 가지 치우침에의 집착은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따로따로 논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붓다님이 네 글귀를 말씀하신 意趣는 참으로 많지만, 이제 잠시 간략하게 네 가지 뜻으로 추려서 보려고 하는 것뿐이다. 불성이 있고 없음을 논설하는 글을 마치려고 한다.

第四義者. 爲離二邊故說四句. 謂前二句別顯離邊. 後之二句總顯離邊. 言別顯者. 謂初句言闍提人有. 遮定無邊非據定有. 第二句言闍提人無. 止定有邊不著定無. 如下文言. 若有說言斷善根者定有佛性定無佛性. 是名置答. 善男子我亦不說置而不答乃說置答. 如是置答復有二種. 一者遮止二者莫著. 以是義故得名置答. 如就闍提遮止二邊. 對善根人當知亦爾. 言後二句總顯離邊者. 第三句言二人俱有.

16) 遮詮 : 遮詮에서의 詮은 표현하여 드러낸다는 뜻이며, 遮詮은 事物을 間接적으로 드러내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소금은 싱겁지 않다, 물은 마르지 않는다, 마음이 기쁘지 않다 등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不生不滅, 不增不減, 不垢不淨 등도 그러한 것이다.

17) 表詮 : 표전이란 사물에 대하여 직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금은 짜다, 물은 적신다, 마음이 슬프다 등이 그러한 것이다.

是明佛性不同兔(菟)角依非無義說名爲有。第四句言二人俱無。是顯佛性不同虛空約不有義說名爲無。如下文言。衆生佛性非有非無。所以者何。佛性雖有非如虛空。虛空不可見。佛性可見故。佛性雖無不同兔<菟>角。兔<菟>角不可生。佛性可生故。是故佛性非有非無亦有亦無。云何名有。一切悉有是諸衆生不斷滅。猶如燈焰<炎>。乃至菩提。≤是≥故名有。云何≤名≥無。一切衆生現在未有一切佛法。是故名無。有無合故是名中道。是故佛性非有非無乃至廣說。若依如是離邊之意。四句皆望當果佛性。若使四句齊望一果。總別二意有何異者。前二人說二句者。依遮詮義以遣二邊。後《總》二人立〔二〕句者。依表詮門以示中道。中道之義通於二人。是故合說。二邊之執隨人各起。所以別說。然佛說四句意趣衆多。今且略爾四種義耳。有無門竟。

제五항 과거·미래·현재의 삼세를 밝히는 부문

삼세와 삼세가 아닌 것에 관하여 밝히려고 하는 부문에는 대략 두 가지 뜻이 있으므로, 먼저는 법신붓다님에 대하여 해석하고, 뒤에는 보신붓다님에 대하여 해석하려고 한다.

만일 이것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해석하면, 법신붓다님의 성품은 비록 因位의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果位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 본체를 얻어 평등성에 도달하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三世가 아닌 것에 포섭되는 것이다.

이러한 뜻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구태여 경의 말씀으로 引證할 필요가 없다.

第五明三世非三世略有二義. 先就法身, 後約報佛. 若就別文. 法身佛性, 雖復因名, 應得果名. 至得其體平等無生無滅. 是故, 一向非三世攝. 是義灼然, 不勞引證也.

다음에는 보신붓다님의 인위의 성품과 과위의 성품에 관하여 해석하려고 하는데, 아래 글의 학설에 의하면 바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여래는 果位¹⁸⁾를 원만하게 이루신 것이며, 보디삿뜨와는 因位¹⁹⁾는 인위를 원만하게 이룬 것이다. 이 둘을 서로 비교하여서 같지 않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나, 여래의 원만한 지혜는 이치의 근원을 완전히 다 이루어, 한 法界와 평등하며 삼세의 끝까지 두루 하고 있으므로, 과거도 아니며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후신보디삿뜨와²⁰⁾는 아직 이치의 근원을 다 이루지 못하였으며, 비록 벌써 원만한 因位를 이루어 붓다님의 성품을 조금은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 붓다님의 최후의 果位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골고루 다 보지를 못하는 것이다. 아직 끝까지 골고루 다 보지 못하는 것을 未來라고 말하며,

18) 과위란 因行이 성취되어 증득하는 佛果의 자리, 깨달은 지위.

19) 인위란 붓다님이 되려고 수행하는 기간

20) 후신보디삿뜨와 이 생애에서 성불하기 때문에 보디삿뜨와로서의 마지막 몸이라는 말씀

아직 원만한 果位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벌써 끝까지 조금 보는 것을 현재라고 말하며, 원만한 因位를 이루어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원만한 因位를 이루어 아직 사라져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過去는 아니다. 이 『大般涅槃經』의 아래 글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如來의 佛性은 과거도 아니며,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후신보디삿뜨와의 佛性은 현재이기도 하며 미래이기도 하다. 그것은 붓다님의 성품을 조금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라 말할 있으며, 아직 끝까지 골고루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未來라고 말씀한다.²¹⁾

물음, 후신보디삿뜨와는 붓다님의 성품을 아직 끝까지 골고루 다 보지 못한다는 뜻은, 아직 이것은 현재에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이것을 미래의 것이라 이르는가? 또는 후신보디삿뜨와가 붓다님의 성품을 조금 볼 수 있는 것을 현재라 말한다면, 이는 곧 여래도 현재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답, 여래가 현재 붓다님의 성품을 볼 수 있다

21) 『大般涅槃經』: 如來佛性, 非過去非現在 \leq 非 \geq 未來, 後身菩薩佛性, 現在未來, 少可見故, 得名現在, 未具見故, 名爲未來.(『大正藏』12-818a)

는 것은, 三世에 두루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필경 時節을 따라 변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현재 붓다님의 성품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세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후신보디삿뜨와가 붓다님의 성품을 조금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 삶과 죽음을 면하지 못하여서 時節에 떨어지게 되므로 현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어려운 질문에 통하는 대답이다.

앞의 물음에 관하여 대답하면, 후신보디삿뜨와가 붓다님의 성품을 아직 끝까지 골고루 다 보지 못한다는 뜻은, 비록 현재 있다고 하더라도 골고루 갖추어 볼 수 있는 種子는 숨어서 아직 생겨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재로부터 생겨날 것이므로 미래라고 한다. 『瑜伽師地論』에서 논설하는 것과 같다.

“아직 과위를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종자와 상속하므로 미래의 과위라고 한다.”²²⁾

이 가운데의 도리도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

次約報佛因果性者. 依下文說, 卽有三句. 一者如來

22) 『瑜伽師地論』: 若未與果當來種子相續. 名未來界. 若未與果現在種子相續. 名現在界. 當知此中如是密意. (『大正藏』 30-585c)

圓果，菩薩滿因，此二相對 以顯不同。如來圓智，窮於理原，等一法界，遍三世際 故非過去現在未來。後身菩薩未至理原，雖復已得滿因，故已少見。未至極果，故未具見。未具見邊，名爲未來。未成圓果故，已少見邊，名爲現在。現得滿因故，猶未謝故非過去。

如經言，如來佛性，非過去非現在 \leq 非 \geq 未來。後身菩薩佛性，現在未來。少可見故，得名現在。未具見故，名爲未來故。

問，未具見義，猶是現在有。何得說是，名爲未來。又若菩薩現得少見故，名現在者，是卽如來，現得其見，應名現在。

答，如來現得，得遍三世，畢竟不爲時節所遷。故雖現得，不在現世。菩薩少見，未免生死，猶墮時節，故爲現在。是通後難。

答前問者。未具見義，雖是現有，具見種子，猶伏未起，由現起故，名未來。

如瑜伽說，未與果，當來種子相續，名未來果，當知此中道理亦爾，

둘째, 여래의 因位와 果位를 서로 待對하여 그 다른 점을 밝히려고 한다. 果位를 내세워서 因位를 바라보면 因位는 모두 아직 究竟의 자리가 아니므로 생겨나고 소멸함을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三世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지만 果位를 근거로 하여 果報를 담론하면 곧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 生因²³⁾으로 생겨나는 것은 반드시 소멸하여 끄샤나(kṣāṇa, 剎那)도 머무르지 않으므로, 이것은三世에 걸치는 것이다. 두 번째, 벌써 이치의 근원에 이르러 본체가 한 法界이므로 두루 하지 않는 데가 없기 때문에三世에 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생겨하고 소멸하는 성질은 이치를 본체로 삼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한 순간 한 순간이 모두三世에 두루 미치는 것이다.三世에 두루 미치는 성질은 모두 생인을 따르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三世에 두루 미치는 것은 끄샤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끄샤나를 물리치면 삼세에 두루 하며,三世에 두루 하는 이치를 따르지 않으면 한 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한 순간이 되어버리므로三世를 따르는 것이며,三世에 두루 하므로 과거도 아니며,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것이다. 이것은 붓다님의 공덕이 불가사의함을 말하는 것인데, 다만 우러러 믿을 뿐이지 생각하고 헤아릴 것이 아니다. 이 『大般涅槃經』 「迦葉菩薩品」 제24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여래가 아직 위없는 가장 높은 깨달음(anuttarā-samyak-sambodhi, 안웃따라삼약삼보디)²⁴⁾을 얻지 못하였을 때, 佛性은 因位이

23) 생인 : 과보를 낳게 하는 원인으로서의 종자. 마치 草木의 씨앗을 草木의 因이라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므로 과거이기도 하며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다. 그러나 붓다님이 된 果位에서는 그렇지 않으므로 三世이기도 하고 三世가 아니기도 하다.”²⁵⁾

물음, 이 경의 글에서 ‘삼세이기도 하고 삼세가 아니기도 하다는 것’은 곧 둘로 분석하여 보아야지, 하나의 성질로만 말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삼세이기도 하다는 것’은 화신 붓다님²⁶⁾의 형색을 말씀하는 것이다.

24) [SED]p.33a anuttarā-samyak-saṃbodhi

p.33a an-uttara mfn. chief, principal, best, excellent, low, south, southern.

p.1181b samy-añc=samyak mfn. entire, whole, complete, 완전한, 正等.

p.733a √budh to wake, wake up, be awake; to perceive, notice, understand; to have an insight into. (깨닫다, 깨닫게 하다, 깨어있다; 인지하다, 알아차리다, 이해하다; ~을 꿰뚫어보다)

bodhi mf. (with Buddhists or Jainas) perfect knowledge or wisdom (by which a man becomes a Buddha or Jina), the illuminated or enlightened intellect (of a Buddha or Jaina). (불교·자이나교에서, 인간이 붓다님이나 자이나가 되는 완전한 지식이나 지혜, 붓다님이나 자이나의 깨달은 앎).

p.1181b samyaksambodhi f. complete enlightenment.

an-uttarā-samyak-saṃbodhi 안웃따라삼약삼보디라고 음사하며, 無上正等覺이라고 한역한다.

25) 『大般涅槃經』

如來未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時，佛性因故，亦是過去現在未來，果則不爾，有是三世，有非三世。(『大正藏』12-818b)

‘삼세가 아니기도 하다는 것’은 보신붓다님의 내덕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의 실덕만을 가지고 알기 어려운 설명을 하는가?

대답, 그대가 보는 것도 또한 일리는 있다. 그것은 새로 배우는 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만일 새로 배우는 이가 아니고 결정적인 집착이 없는 이라면, 이들을 위해서는 앞의 말씀과 같이 해야 한다. 이러한 뜻을 나타내려고 이 『大般涅槃經』 「迦葉菩薩品」 제24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까쉬야빠kāśyapa 보디삿뜨와가 붓다님께 사뢰어 말하기를, 세존이시어! 어찌하여 인위가 또한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며 미래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시는지요? 그리고 과위가 또한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며 미래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며 미래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요? 붓다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26) 화신붓다님(nirmāṇa-kāya-buddha, 응신, 응화신) : 교화의 대상에 맞춰서 임시로 어느 자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불신이라는 뜻이다. 이 붓다님은 보신처럼 시방/삼세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완전하고도 원만한 이상적인 붓다님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지역에서 구제해야 할 대상에 맞춰서 모습을 드러내는 붓다님을 가리킨다.

는 因이며, 둘째는 果이다. 이 因의 오음은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며 미래이기도 하다. 이 果의 오음은 또한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며 미래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며 미래도 아니라고 하신다."²⁷⁾

이러한 경의 예증을 근거로 하여 보면, 한 果의 오음은 삼세이기도 하며 또한 三世가 아니기도 하다는 것을 꼭 알아 두어야 한다.

第二句者, 宜就如來, 因果相對, 以明差別, 立果望因, 因皆未極, 不離生滅, 故隨三世. 就果談果, 卽有二義, 〔一〕者生因所生者, 必滅剎那不住, 故是三世. 二者已至理原, 體一法界, 無所不遍, 故非三世, 然其生滅德, 無不體理, 故一一念, 皆遍三世, 遍三世德, 莫不從因, 故其周遍不過剎那, 爾退剎那, 而遍三世, 不從周遍, 而爲一念, 爲一念故, 隨於三世, 遍三世故, 非過現未, 是謂佛德, 不可思議, 但應仰信非思量流,

如經言, 如來未得阿耨菩提時, 佛性因故, 亦是過去現在未來. 果卽不爾, 有是三世, 有非三世故

問者, 是經文, 有是有非. 卽應二別, 不就一德, 有是三世

27) 「大般涅槃經」: 迦葉菩薩白佛言. 世尊. 如佛所說. 云何名因亦是過去現在未來. 果亦過去現在未來. 非是過去現在未來. 佛言. 善男子. 五陰二種. 一者因二者果. 是因五陰是過去現在未來. 是果五陰亦是過去現在未來. 亦非過去現在未來. (『大正藏』12-818b)

者, 化身色形是, 有非三世者, 報佛內德是. 亦如是二義, 灼然可見. 何勞宜就實德, 而作難解之說.

答, 如汝所見, 亦有道理. 爲新學者, 應作是說. 若非新學, 無定執者, 爲是等人, 應如前說. 爲顯是義故. 彼下文言, 迦葉菩薩白佛言 世尊云何名因, 亦是過去現在未來. 果亦過去現在未來, 非是過去現在未來. 佛言五陰二種, 一者因, 二者果. 是因五陰是過現未, 是果五陰亦是過去現在未來, 亦非過去現在未來. 依是文證, 當知宜就一果五陰, 亦是三世, 亦非三世.

셋째, 보디삿뜨와의 因位와 果位를 서로 대대시켜서 삼세를 논변한다는 것은, 보디삿뜨와의 불성은 아직 생겨나고 죽는 것을 면하지 못한 것이므로, 먼 훗날 올 것을 바라보면 인위가 되며 앞에 지나간 날을 바라보면 과위가 된다. 그것은 종자는 인위가 되고 現行은 과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보디삿뜨와의 인위와 과위는 모두 三世를 따르므로 아직 이치의 근원에 이르지 못하여 三世가 아닌 것이 없다. 이 『大般涅槃經』 「迦葉菩薩品」 제24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후신보디삿뜨와는 불성이 인위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과거이기도 하도 현재이기도 하며 미래이기도 하다. 그 보디삿뜨와의 과위도 이와 같으므로, 이것을 분별답²⁸⁾이라고 한다. 九地

28) 분별답 vibhajya-vyākaraṇa

應分別記問=分別記=分別答: 解義答 vibhajya-vyākaraṇa 은 사기

보디삿뜨와는 불성이 인위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며 미래이기도 하다. 그 보디삿뜨와의 과위도 이와 같으므로, 이것을 분별답이라고 한다.....”29)

물음, 둘째 내용에서는 여래의 因位를 밝히면서, 아직 붓다님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의 인위의 성품에 관하여 취급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셋째 내용에서는 보디삿뜨와의 과위를 밝히면서, 널리 미래의 붓다님을 이룰 때의 과위의 성품에 관하여 말씀한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가운데에서 미래의 붓다님이 될 과위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果位를 내세워서 인위를 바라보는 것을 예로 삼아서 안 된다. 보디삿뜨와의 인위는 벌써 닦았기 때문에 인위에 관하여 취급한 것이다. 그

답 가운데의 하나이며, 묻고 대답하는 문답법은 아래와 같은 것이다.

“죽은 이는 모두 윤회하는가?”라는 물음에,

“번뇌가 있는 이는 윤회하며, 없는 이는 재생하지 않는다”라고 조건에 따라서 대답하는 경우이다.

[사기답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13을 참조하기 바람]

29) 『大般涅槃經』: 後身菩薩佛性因故亦是過去現在未來。果亦如是。是名分別答。九住菩薩佛性六種。一常二善三真四實五淨六可見。佛性因故亦是過去現在未來。果亦如是。是名分別答。八住菩薩下至六住佛性五事。一真二實三淨四善五可見。佛性因故亦是過去現在未來。果亦如是。(『大正藏』12-818b)

인위의 수행은 과위를 바라보고 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과위를 아직 깨달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위에 관하여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디삿뜨와의 지위 안에서 과거와 미래를 서로 바라보면서 인위와 과위의 삼세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불성의三世에 관한 해설을 마치려고 한다.

第三句者，宜就菩薩，因果相對，以辨三世者，菩薩佛性未免生死，望後爲因，望前爲果。種子爲因，現行爲果。如是因〔果〕皆隨三世，未至理原，無非三世。

如經云，後身菩薩，佛性因故，亦是過去現在未來，果亦如是，九地菩薩，佛性因故，亦是過去現在未來，果亦如是，

【九地菩薩，佛性因故，亦是過去現在未來，果亦如是，】乃至廣說故。

問，第二句中，明如來因，乃取未成佛時因性。今第三句，明菩薩果廣說，當成時果性。何故此中，不取當果。

解云，不例立果望因，因是已修故得取，因在望果，果非已證，所以不取。是故宜就菩薩位內，前後相望，而說因果三世，三世門竟